

배포 일시	2022. 12. 31.(토)		
담당 부서	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조성균 (044-201-4600)
		담당자	사무관 김강문 (044-201-4602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수서 고속선 지연(12.30, 지제역 부근) 관련 일제 점검 실시 - 시설 유지보수 규정 위반 여부 등 엄중 조사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12.30.17:02경 수서고속선 지제역 부근의 전차선 전기공급 중단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는 KTX, SRT 등 고속열차 운행 지연(최대 130분)의 책임 규명 등을 위해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.
- 수서고속선 남산 분기부~지제역 구간(약 3km) 상행선 전차선은 전기공급 중단 이후 5시간 여만인 23:20경에 전기가 공급되어 운행을 재개했으며, 복구 작업으로 인해 167개 고속열차가 10~130분간 지연되었다. 또한, 사고구간 전기공급 중단은 SRT 차량 32편성 중 18편성의 전기장치를 고장내고 11편성은 현재까지도 운행을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다.
- 국토교통부는 초동 조사결과 철도공사(코레일)이 담당(철도공단이 하자보수 위탁)하고 있는 통북 터널내 하자 보수 공사('22.10.24~'23.1.31)로 발생한 이물질(부직포)가 전차선에 영향을 주어서 전기 공급이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, 하자 보수공사의 부실 및 사후확인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.
-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 민간자문단(12.16 발족) 점검을 통해, 통북 터널 하자보수 공사의 책임소재를 포함한 본 열차 지연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철도시설 유지보수 등에 있어 철도안전법 등 규정 위반이 확인 될 경우, 관계자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봉역 사고(11.5), 영등포역 탈선(11.6) 등 중대사고 이후에도 연이어 발생하는 열차장애와 운행지연은 국가 철도의 유지보수/차량 정비/관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드러내므로 근본적인 안전체계 진단 및 개선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밝혔다.